

광주 독립영화감독 7인의 작품 만난다

광주독립영화 정기상영회 '씨앗'

송원재·김래원·허지은 등 작품 13편

무료 상영 뒤 매번 관객과의 대화

광주 독립영화감독들의 작품을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행사가 열린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김지연)는 광주독립영화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미래세대 발굴을 위해 광주독립영화 정기상영회 '씨앗'을 진행한다.

'씨앗'은 광주에서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는 감독들과 이들이 만든 작품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상영회는 19일부터 시작해 2주 간격으로 6회 진행되며 총 7명의 감독을 만나게 된다.

송원재·김래원·허지은·이경호·유명상·김경심·김희정 감독이 그 주인공들로 이들은 광주를 기반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감독들이다. 이들 중 김래원 감독은 광주 출신으로 현재 서울에서 영화를 찍고 있으며 김희정 감독은 조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의 첫 일정은 19일 오후 7시 송원재 감독의 '당신'과 '죽은 시간'을 상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당신'은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영화의 사운드는 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역정을 들려주고, 영상은 실험적인 이미지로 채워지며 관객들에게 독특한 영화체험을 안겨준다. 송 감독은 이 작품으로 서울독립영화제 본선에 오르기도 했다.

'죽은 시간'은 묘한 기운이 감도는 모델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한적한 모텔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텔의 비밀이 밝혀진다. '당신'과 '죽은 시간'의 상영이 끝난 후에는 송 감독과 관객들이 영화



송원재 감독의 작품 '죽은 시간'

■광주독립영화 상영일정

〈장소:동구 서석동 광주독립영화관〉

일시	감독	작품명
7월 19일	송원재	'당신' '죽은 시간'
8월 2일	김래원	'이사' '인디펜던스 데이'
8월 16일	허지은·이경호	'돌아가는 길' '신기록'
8월 30일	유명상	'전역날' '결혼은 하셨는지'
9월 13일	김경심	'결혼별곡' '815'
9월 20일	김희정	'아버지의 초상' '만남' '연젠가'

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어 8월 2일에는 김래원 감독의 '이사'와 '인디펜던스 데이'가 상영된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최근 미장센다편영화제에서 심사

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허지은, 이경호 감독(8월 16일)의 '신기록'도 만나볼 수 있다. '신기록'은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의 이야기로, 탁월한 미장센이 돋보이는 영화다.

또 유명상 감독(8월 20일)의 '전역날', '결혼은 하셨는지'도 만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김경심 감독(9월 13일)의 '결혼별곡'과 '815'가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정포도 사랑': 17년 전의 약속'과 '선행-눈길을 건다'를 연출한 김희정 감독(9월 20일)의 초기 단편영화들을 만나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씨앗'은 광주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편 무료로 상영된다. 모든 상영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시간이 마련된다. 문의 062-222-189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병란 시인 기리는 시낭송대회 열린다

8월 한달간 녹음파일 접수

문병란(1935~2015) 시인은 생전에 서석동(瑞石洞)에 은거한다는 뜻으로 서은(瑞隱)이라는 호를 썼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시인 문병란"은 남도가 배출한 대표 시인이다. 그의 시 '무등산'에는 광주

의 정신과 의로움이 투영돼 있다. 서은 문병란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시낭송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낭송대회가 열린다.

(사)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는 제1회 서은문병란 전국시낭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낭송대회는 문병란 시인의 문학 세계를 조명하고 시낭송 애호가들의 낭송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참여가능하며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참가신청서 및 참가 시 원문 ▲참가 시낭송 녹음파일을 제출(이메일 bmw7500@hanmail.net)하면 된다. 신청서와 시 원문은 서은문병란연구소 카페 (<http://cafe.daum.net/m-b-l>)에서 다운로드 가능



고 문병란 시인

송하며 낭송시간은 4분 이내로, 배경음악·효과음·소품 사용 불가하며 고정된 마이크를 사용한다.

예심 결과는 9월 10일 오후 2시 발표되며 본선은 10월 6일 오후 2시 동구문화센터 5층 아트홀에서 열린다.

대상(1명)에게는 상장과 150만원, 금상(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원 등이 주어진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서은 문병란 시 낭송대회 시인'을 수여한다.

문의 062-234-8158, 010-3612-699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현대적 감성이 깃든 시인 96명의 작품

시산맥 시선집 '감성'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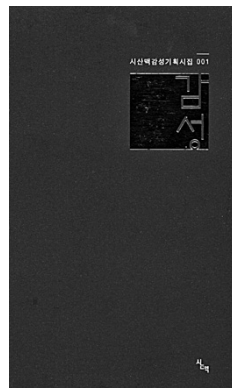
"시인의 뿌리는 뜨겁고 차갑다. 그것은 이성과 감성이 공존한다는 의미다. 때때로 내면 깊숙한 곳에서 혹은 불안한 시대를 걷는 사람에게서 발현되는 감성은 도처에 즐비하다. 누군가의 한숨이 무경계의 순간이 되기도 하고 역병처럼 퍼들기도 한다. 이 같은 세상에서 상처를 연대하는 사람, 펜촉에 매달려 고뇌를 고스란히 뿜어내는 사람, 존재의 본질을 가장 정교하게 통찰하는 사람이 시인인 것이다."

광주일보와 운동주서시문학상을 공동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계간 시산맥이 시선집 '감성' <사진>을 발간했다.

2009년 문정영 시인을 중심으로 창간된 계간 '시산맥'은 5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 문학단체다.

지난 2000년 온라인으로 시작해 2009년까지 시창작 교실을 운영했으며 호남지부, 영남지부, 강원지부, 제주지부가 개설돼 있다. 특히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을 통해 사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학단체 가운데 하나다.

이번 시집에 수록된 작품은 모던함과 풍부한 감성이 깃든 작품 위주로 선택됐다. 김필영, 김혜진, 문정영, 성백선, 안차애, 양현주, 이성렬, 이재연, 이화영,



정선, 정안나, 진혜진, 최연수, 한경용, 허은희 시인 등 모두 96명 시인들의 작품은 저마다 독특한 시 세계를 이룬다.

"한번 물어버린 의문은 위아래가 없어

/ 서로에게 역삼각형 위험 표지판에 닿는다/ 풀잎이 무성한 국경선쯤에서 너머를 접는/ 같거나 다른 우리들/ 고개를 숙여야 바라볼 수 있다"(진혜진 '의문 기울기' 중에서)

광주일보 신춘문예(2016) 출신 진혜진 시인의 '의문 기울기'는 일상에서 부딪치는 의문의 실상을 감성적으로 접근한다.

생각과 생각이 이어지며 끊임없이 자라나는 의문의 본질을 절제된 시어와 유연한 사유로 풀어낸다.

시산맥 편집부는 시선집 발간에 대해 "더 좋은 작품도 많겠지만 선택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점 양해를 구한다"면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상상의 세계 또한 구축하는 넓고 다양한 형태로 나아가는 시의 길에 시산맥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도심공원에서 즐기는 '오페라 갈라' 21일 광장음악회

제86회 광장음악회 '오페라 갈라'가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물빛근린공원에서 열린다.

정찬경의 진행으로 시작하는 이번 공연은 베르디의 오페라 곡으로 꾸며진다. 첫 무대는 '라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와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를 문을 연다.

이어 오페라 '맥베스' 중 '오나의 아들들이여', 오페라 '돈 카를로' 중 '아 기구한 운명여',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그래, 복수다'를 무대에 올린다.

또 '일 트로바토레' 중 '불꽃은 타오르고', '타오르는 저 불꽃'을 선보이며 '시몬 보카테그라' 중 '이 어두운때'를 준비했다.

마지막 무대는 '리골레토' 중 '연젠가 너를 만난 것 같



다'로 마무리한다.

이번 공연에는 테너 강백호, 윤병길, 메조소프라노 박순영, 바리톤 김대수, 소프라노 남현주, 파아노 이유정, 바이올린 박승원, 첼로 박효은 등이 출연한다. 문의 010-2038-362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예술리서치' 공모

광주문화재단은 2018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사전 프로그램 '예술리서치 프로젝트' 참여자를 공모한다.

올 페스티벌은 '알고리즘 소사이터-상호 감시의 시대(가제)'를 제목으로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현대 사회의 모습을 조명하고 분석한다.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는 ▲현대사회(도시)에서 발생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변형되는 다양한 지점을 분석하는 조사연구 ▲현대 사회의 (상호) 감시 구조에 관한 문화사회적 조사연구 ▲페스티벌 주제와 관련한 문화사회적 조사연구를 통해 출판물, 설치작품, 영상작품 등으로 제작 ▲현대사회의 기반 시설 및 구조의 변화를 담아내는 예술작품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에 관한 인터뷰 및 다큐멘터리 제작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 등 6가지다.

선정된 최종 3팀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시작자료, 설치작품, 영상작품 또는 제안자의 의도에 따라 결과물로 제출해야 한다. 최종 결과물은 평가를 거친 후 2018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본 전시에 출품된다.

접수기간은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92. /박성천 기자 skypark@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캣트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특허공법

펜션건물 맞춤회전 시공 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디자인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목포 (061)683-0485

여수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